

# ‘버려진 양조장’ 재활용... ‘어두운 뒷골목’ 별 들다

## 도시재생

### 문화가 해법이다

해외편 (13) 런던 트루먼 브루어리

런던=박진현 문화선임기자

## 젊은 예술가들, 트루먼 브루어리에 ‘예술촌’ 인근에 실리콘 벨리·올림픽 파크 조성 이끌어 빈민가였던 이스트 엔드, 런던 새 아이콘으로

하지만 직직한 이스트엔드가 ‘런던의 소호’로 180도 변신하게 된 데에는 지난 1666년 설립된 트루먼 브루어리(Truman Brewery) 양조장이 있었다. 지난 1988년 문을 닫은 트루먼 브루어리와 19개의 부속건물들이 예술가들의 아지트로 되살아난 덕분이다. 지난 1666년 이스트엔드의 중심인 브릭레인(Brick Lane)에 설립된 트루먼 브루어리는 연간 20만 배럴의 맥주를 생산해내는 런던 최대의 양조장이자 세계 최대의 공장이었다. 양조장 대표인 조셉 트루먼(Joseph Truman)의 이름에서 따온 트루먼 브루어리는 호황기에는 종업원만 1000여 명에 이를 정도였다. 또한 양조장 주변에는 영국의 상징인 술집(pub)이 수백여 개나 밀집해 성업을 이뤘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과 1960년 대 이후 수입맥주가 들어오면서 경영난을 겪다가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



이스트엔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래피티(벽화).



1950년대 2층 버스를 개조한 ‘버스레스토랑’.

약 3년 동안 빈 건물로 방치된 트루먼 브루어리에 눈을 돌린 사람은 젊은 예술가들이었다. 브릭레인이라는 지명에서 알 수 있듯 붉은 벽돌로 지어진 양조장은 용도가 폐기된 산업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의 스튜디오로 사용하기엔 더 할 나위 없는 구조를 지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영국의 전통적인 빅토리아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은 공장으로서의 드물게 정교한 아치형 벽면과 장식이 인상적이다.

그래서일까. 트루먼 브루어리 주변을 둘러보면 건물의 특성을 그대로 살린 작업실과 갤러리, 디자인 습, 패션숍 등이 많다. 딱히 돈을 들여 리모델링한 흔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300여 년 전의 투박한 양조장 건물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45m의 굴뚝과 250평 규모의 벽돌 창고인 보일러 하우스(Boiler House)는 트루먼 브루어리의 랜드마크. 창문이 넓은 데다 천장이 높아 자연채광을 활용하는 대형 전시나 이벤트 공간으로 인기가 높다.

화려한 건물들과 관광명소들이 많은 웨스트엔드와 달리 브릭 레인은 젊은 예술가들의 자유분방한 벽화와 조형물들로 넘쳐난다. 특히 주말에 열리는 브릭 레인마켓과 선데이마켓에는 수만여 명의 시민들이 다녀 갈 정도다. 방글라데시와 유대인들의 집단 거주지이다 보니 토속적인 공예품을 한자리에 모은 베품시장과 다문화 음식점 등 색다른 분위기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1만2200여 평에

이르는 트루먼 브루어리 일대에는 약 250여 개의 스튜디오와 갤러리, 디자인숍, 패션숍, 레스토랑, 카페, 사무실 등이 밀집돼 있다.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인 변신은 일부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지난 1995년 몇몇 섬유업체 대표들은 사무공간과 상업, 문화시설의 환상적인 공존에 주목하고 트루먼 브루어리를 창의적인 허브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빈 건물들을 사들였다. 이들 업체들은 제루프 파트너십(Zeloo Partnership)을 맺고 자신들의 비전을 실현해 줄 기획자와 전문가들을 끌어들이 ‘이스트엔드’의 기적을 일구어

낸 것. 특히 지난 2012년 인근의 스트라트포드에 조성한 런던 올림픽 파크는 이스트엔드가 문화예술의 중심지이자 런던의 실리콘 벨리로 거듭나는 기폭제가 됐다. 런던의 새로운 미래로 이스트엔드를 개발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사실 템즈강 동쪽에 자리한 이스트 엔드는 뮤지컬의 본고장이자 관광명소가 즐비한 웨스트엔드에 비해 낙후된 지역이다. 서울의 강남이 웨스트엔드라면 이스트엔드는 강북이라고 할 만큼 두 지역의 컬러가 완전히 다르다. 하지만 트루먼 브루어리의 재생으로 이제 이스트엔드는 웨스트엔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아우라로 런던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트루먼 브루어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장소성을 활용한 콘텐츠다. 1950년대 구형 2층 버스를 개조한 ‘버스 레스토랑’과 각국의 풍물을 즐길 수 있는 ‘선데이마켓’, 그리고 헌옷의 재활용을 내건 공익 캠페인 ‘Shwopping’은 대표적인 사례다. 시민들에게 외면받은 2층 버스를 리모델링한 레스토랑에는 채소와 유기농을 판매하고 매주 일요일 문을 여는 선데이마켓은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의 신상품을 직거래할 수 있는 베품시장으로 평균 140여 개의 좌판이 펼쳐진다. 베품시장 주변에는 에티오피아 커피에서부터 모로코 음식까지 수십여 개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장터가 열린다.

쇼핑(shopping)과 스와핑(swapping)의 합성어인 ‘Shwopping’ 캠페인은 입지 않는 옷들을 재활용하자는 취지로 트루먼 브루어리의 장소성을 잘 보여주는 이벤트다. 지난 2012년 런던의 대형의류업체인 마크 앤 스펜서(Marc & Spencer)는 구호단체인 옥스팜(Oxfam)과 손잡고 트루먼 브루어리 건물 외벽에 영국에서 5분 동안 버려지는 헌옷 9513장을 내걸었다. 의류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 이 프로젝트는 재생의 아이콘 트루먼 브루어리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트루먼 브루어리의 홍보책임자 엠마 누리엘(Emma Nourie)은 “트루먼 브루어리의 변신은 일시적인 성과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스트엔드의 문화생태계를 비옥하게 만든 거점공간이다”면서 “IT상인들이 몰려 있는 인근 소디치 지역의 실리콘 라운드어바웃(Silicon Roundabout)와 컨테이너 박스로 설계된 박스파크들은 트루먼 브루어리의 진화를 상징하는 현장”이라고 말했다.

jhpark@kwangju.co.kr

※이 기획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3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트루먼 브루어리 양조장은 장소성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로 오랫동안 빈민가로 방치됐던 이스트엔드(East End)를 창조산업의 메카로 탈바꿈시켰다. /런던=박진현기자 jhpark@kwangju.co.kr



지난 2012년 의류 재활용을 모토로 내건 ‘쇼핑(Shwopping)’캠페인은 트루먼 브루어리를 영국 전역에 알린 계기가 됐다. <Oxfam 제공>



길이 ~5m, 두께 100mm

통원목가구 광주 최초판매 (가정용 · 업소용 · 인테리어)



☎ 1899-0240  
www.hong79.com